전주시, 호우 피해 최소화 총력

우범기 시장, 연일 피해지역 찾아 현장점검… 시민 안전 지키는데 전력

연일 이어진 폭우로 전주 시내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가 호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4일부터 피해지역을 찾으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회복을 약속했다. 또 우 시장은 현재 기상 상황과 피해 정도, 부서별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 단계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인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

우범기 시장은 16일 토사 유출로 복구작업이 한창인 우아동3가 견훤로를 찾아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구작업을 서둘러달라"고 언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남부시장 싸전다리 인근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은 연일 이어지는 많은 비로 지난 15일 도로 옆 동산에서 토사유출이 시작됐다. 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절개지에 방수포를 덮고, 모래 마대 쌓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 유실된 토사량은 약 폭 5m, 높이 6m, 깊이 10m 정도에 달한다. 시는 도로보호를 위해 △절개지 방수포 작업(300㎡) △모래마대 300개 △도로 살수작업(총4회) 및 안전시설물(PE 드럼통)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이어 우 시장은 남부시장 싸전다리 인근도 찾았다. 이곳은 연일 이어지는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천주천변의 호안이 일부 유실됐다. 우 시장은 오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을 막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세울 것으로 지시했다.

전주지역은 지난 14일 호우주의보에 이어 15일 오전 4시를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하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우 시장은 많은 비가 예보되자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단계별로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서별 현재 상황과 대비태세,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해 왔다. 안전정책과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근무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우 시장은 지난 14일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주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용소중학교를 찾아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같은 날 상습침수지역인 쌍다리와 동서학동 원당천 주변을 찾는 등 폭우 상황에 대응해 왔다.

우범기 시장은 "연일 이어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가 소강상태라도 안심하지 말고 재해위험지역과 취약계층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피해지역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불편해소와 피해복구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본인이 맡은 자리와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업무에 임하라"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지난 1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신동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을 기념하는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개소

전주 서부권 생활체육 거점… 7월 무료 이용

전주 서부권 생활체육 거점이자 시민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앞당길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1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신동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을 기념하는 여는 날 행사를 가졌다.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국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10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49㎡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수영장(25m, 5레인)과 지상 1층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7월 한 달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식 개장하는 오는 8월부터는 유료(체육관=1일 2000원, 수영장=1일 3000원)로 전환되며,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위해 조성된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에서 전주 서부권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곳곳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서부호주한인회와 교류 확대

중소기업 판로 확대 위해 인적 교류 확대 · 수출교두보 마련 방안 논의

전주시가 강한경제 전주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호주지역 한인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4일 전주를 방문한 안병운 사단법인 서부호주한인회 회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인적 교류 확대 및 수출교두보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동욱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이 함께하여 민간 차원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내 기업이 호주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혀가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최신 경제동향 및 정보를 제공받고 경제적 교류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류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었다.

전주시가 강한경제 전주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호주지역 한인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호주는 호주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시드니와 멜버른, 브리즈번에 이어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빛의 도시' 퍼스가 서호주의 중심도시이다.

이날 전주를 찾은 사단법인 서부호주한인회는 지난 1977년 1월 1일 창립된 이래로 46년간 한인공동체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며, 매년 한인의 날 등 큰 행사를 통해 타민족과의 교류와 한국적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넘어 관내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교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민간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병운 (사)서부호주한인회장은 "전주시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지역 특산품과 우수제품을 호주 현지에 알릴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도록 협력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여름을 읽다' 여름 독서 교실 8월 1~3일 운영

전주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삼천·송천·인후·이중도서관 등 4개 시립도서관에서 여름 독서 교실을 운영한다.

'여름을 읽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 독서 교실에서는 '농부 달력'(김선진, 웅진주니어)과 '여름이 온다(이수지, 비룡소)', '여름밤(천미진, 발견/키즈엠) 등 여름과 관련된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 활동을 비롯해 △화가투 전래놀이 △연극으로 만나는 여름 이야기 속으로 △시화 꾸미기 △새콤달콤 과일꼬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여름독서학교는 전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4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여름 독서교실 참가자 중 우수 학생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과 전주시장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자봉센터, 전국 대학생들과 몽골 해외봉사활동

전주시가 전국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몽골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올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해외봉사활동을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 비오콤비나트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회장 전성용)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솔자 2명은 교육부와 월드프렌즈코리아(WFK)의 후원으로 선발된 전국 대학생 23명과 함께 14일부터 2주간 몽골 비오콤비나트 지역에서 교육봉사와 특화(환경)봉사, 문화교류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봉사자들은 몽골 현지 학교에서 △한국문화 △보건·체육 △미술·과학의 3개 교육과목으로 현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봉사를 펼친다.

올해는 UN(국제연합)이 오는 2030년까지 지구와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해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환경특화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으로 K-POP과 태권무, 전통문화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 한국·몽골 양국의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김옥기 기자